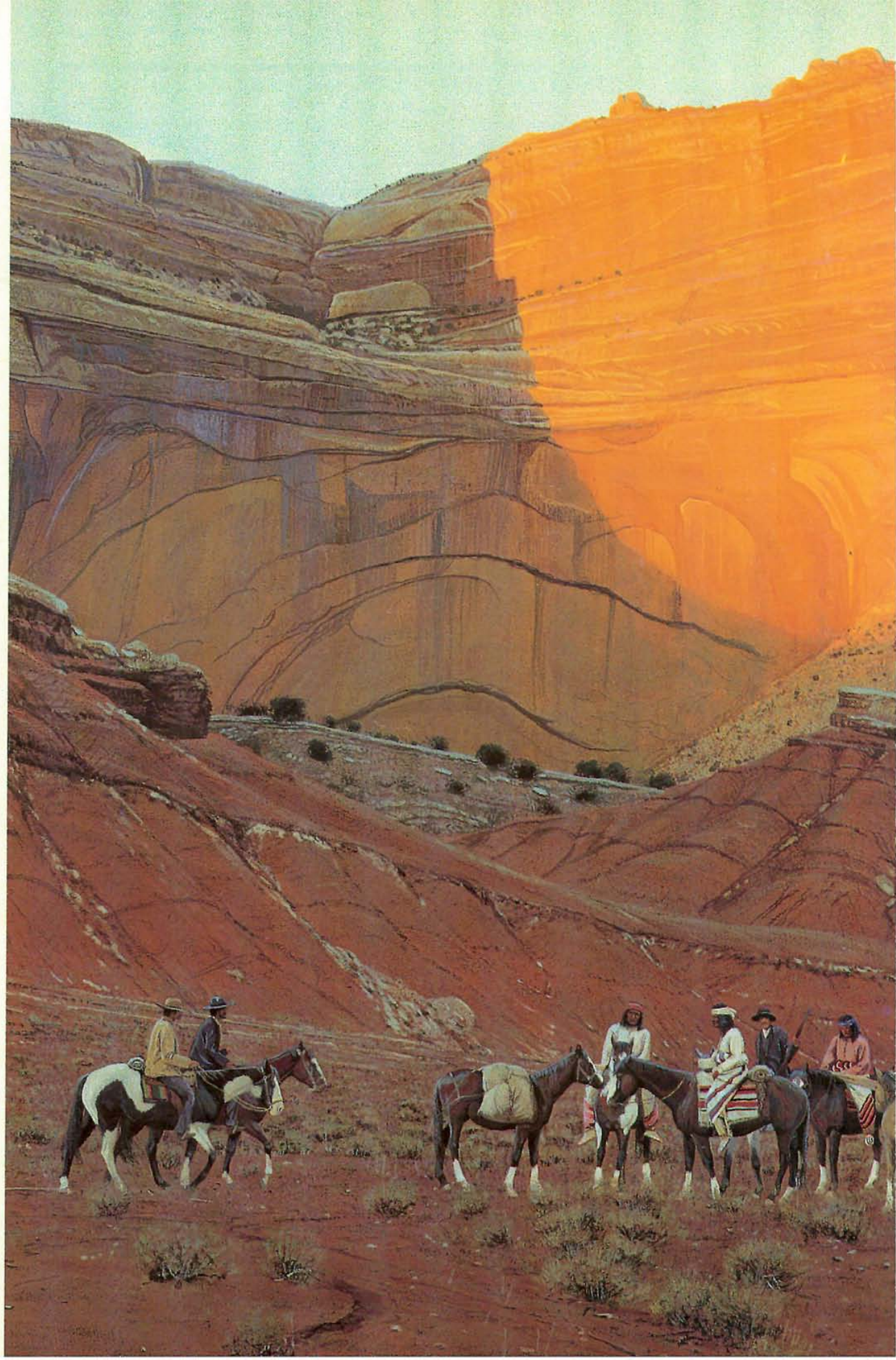


서도의변

9 1995

별책 부록 : 어메이칸

말의성도
에수그리스도
교회





앞 표지

1800년대 중반에 브라질 영 대관장은 호피족과 나바호족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게 했다. 당시의 접촉으로 인해 많은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다. 오늘날 그들의 손자녀와 증손자녀들의 상당수가 말일성도 예술가로 활약하는 가운데, 전세계의 화랑이 그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남서부: 말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34쪽 참조)

첫번째 개종자들 가운데에는 호피족 추장의 투바가 속해 있었는데, 그는 후에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존 아비스의 1982년 작인 이 그림은 추장의 투바가 리틀 콜로라도 강에서 말일성도 선교사의 제이콥 햄블리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뒷 표지

왼쪽, 위: 영광의 새 동굴, 레스 대명하 그림. 오른쪽, 위: 호박꽃 목걸이, 웨인 셰카광태와 작품. 헌신적인 말일성도의 웨인 셰카광태와는 직물처럼 무늬를 짜서 신화시킨 한 층의 은 위에 또 한 층의 은박을 씌우는 기술의 대가이다. 아래쪽의 무늬가 위에 덮어 씌운 층을 통해 보이게 된다. 오른쪽, 아래: 고대인들의 메이리, 루시 루페 맥켈비 작품. 다양한 남서부 부족의 전통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맥켈비 자매는 물문경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황아리 앞 부분의 작은 구멍은 그 부족의 조상이나 "고대 사람들"이나 고대의 예언자들을 나타낸다. 왼쪽, 아래: 노아와 방주, 유진과 이사벨리 니란호 가족. 니란호 가족의 3대가 감정색 황아리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새기는 일을 함께 했다.

어린이란 표지

오스트레일리아의 텔레비전 유명 인사의 11세의 매튜 크록(어머니와 함께 한 모습)은 많은 힘을 새 노래를 연습하는 데 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리그의 매튜 크록*, 2쪽 참조. (사진 촬영 : 리처드 엠 롬니)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이 축복받은 시대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2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16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 페리와 애나 브렛	24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녀의 선교부였다	
루스 맥콤버 프렛과 앤 사우스 난도르프	26
결혼 생활과 산상 수훈 폴 케이 브리우닝	28
내 옆의 천사들 라라 마요 뱅거터	33
남서부:말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성스러운 유대	34

청소년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르펠 파타카웬	8
에스토니아에 개설된 교회를 증언하도록 선택됨	
바르바라 루이스	10
웃을 일이 아님 카일레 누겐트	14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42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재닛 토머스	46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더욱 순결하게 됨"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친구 사귀기:오스트레일리아 캐슬리그의 매튜 크록	
리처드 엠 롬니	2
명예롭게 귀환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5
노래:신앙 비트리스 고프 잭슨과 마이클 핀러슨 무디	6
심심풀이:경전 이야기에 관한 미로 찾기	8
함께 나누는 시간: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잔 엘 워너	10
이야기:장군 엘마 제이 에이츠	12

성도의 벗 1995년 9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고든 비 핑클라, 토마스 에스 모슨, 제임스 아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윌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빌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마이클 에이치 쿡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라,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울런드, 헨리 비 아이어랄

편집인: 맥스 디 피에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팅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벨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엠 가와시끼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아리아란: 다앤 워커
스케줄 관리: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킵 디 밴 캄펜
디자인: 세리 쿡

생산 관리: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인 앤 피터스, 데니즈 커티, 마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윌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스, 켈트 에이치 쇼렌슨

통 권: 제 355호, 제 32권, 제 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5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민

편집인: 최상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의애주식회사 김현수
©1995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September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089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옥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경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모국어로

저는 저의 모국어로 총관리 직원들의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을 전해 주는 투 후루(통가어 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달 그 메시지와 기사들은 제 영혼을 평화롭게 해주며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주며 경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매달 그것을 읽은 후, 그 메시지와 권고를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긴 여행을 할 때마다 저는 늘 투 후루를 가지고 다닙니다.

투 후루에 나오는 기사는 일상 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아투아 이에올라 파아푸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헨더슨 스테이크
티티랑기 와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눔

저는 1990년대 초에 침례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중 한 가지는 1990년 2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가장 값있는 일"이라는 대관장단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로 인해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선교사로서 저는 리아호나를 활용하여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매달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힘을 얻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칼로스 루이스 론돈 장로
베네주엘라 마라카이보 선교부

살아 계신 예언자의 권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와 같이 훌륭한 잡지를 읽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세상적인 유희와 싸울 때 우리에게 권고를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다니엘 카바잘 바론
멕시코 시티 이차팔라과 스테이크
이차칼코 와드

훌륭한 모범

저는 1994년 12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버논 엘 힐의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이란 기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는 루카소바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써 그녀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조직과 단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십일조를 따로 떼어서 모아 두었습니다. 신앙과 정직 및 순종에 대해 이 훌륭한 자매가 보여 준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이 잡지를 잘 읽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총관리 직원들의 권고와 이로운 생활에 대한 모범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다 푸케우 데 무노즈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남 스테이크
빌라 올라 와드



이 축복 받은 시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의 큰 기대에 못 미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 마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이 시대는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이며, 청소년
여러분은 그 위대한 시대의
수혜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
위대한 지식과 빛과 진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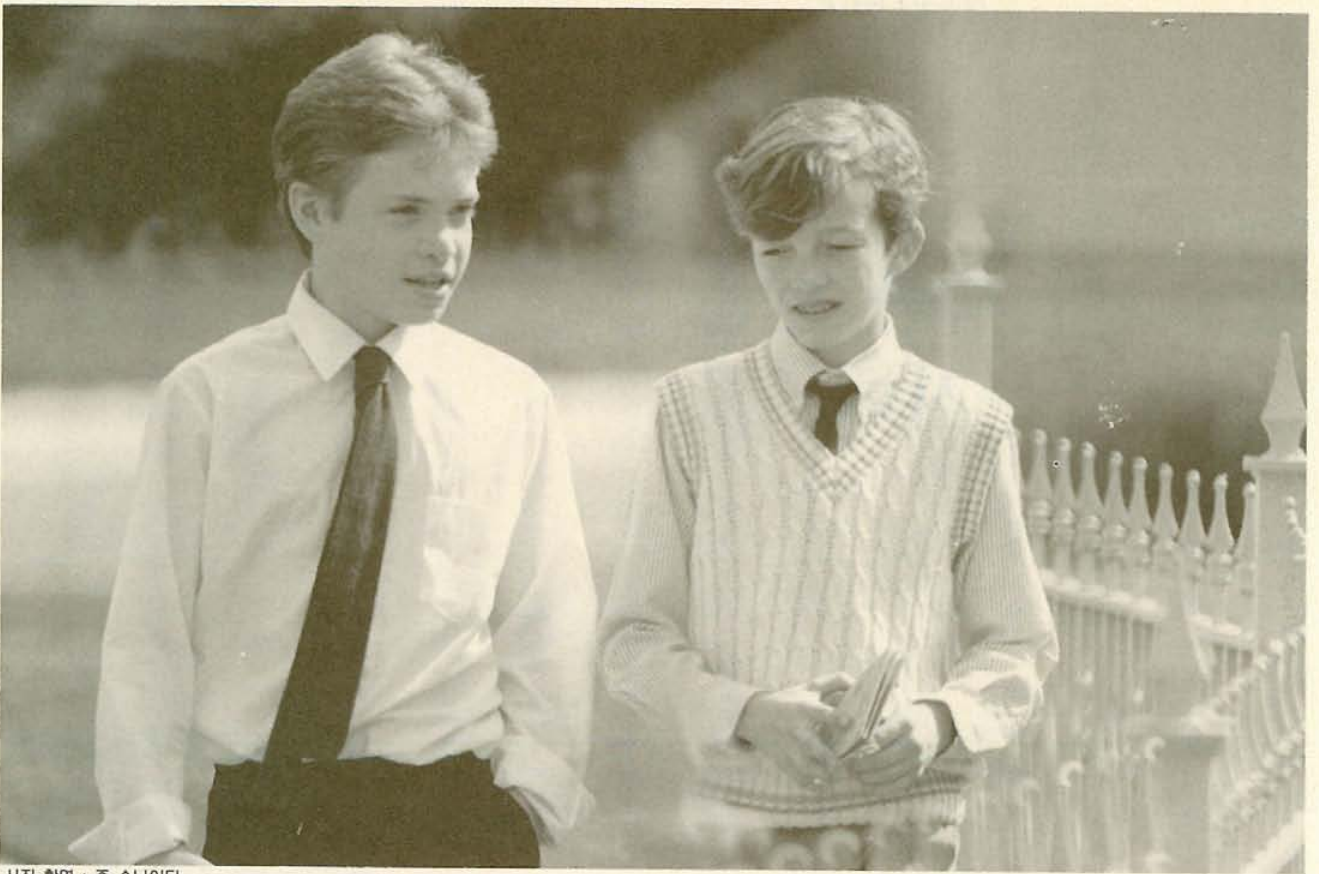


사진 촬영 : 존 스나이더

저는 여러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는 보다 높은 이상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신문의 편집인에게 보낸, 우리 교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들이 언제쯤 독특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미국인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일부가 될까요?”

이 무렵 제 책상으로 인디애나 주 상원 의원인 덴 코츠 의원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는 미국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룬 한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두번째를 차지한다...매년 백만 명 이상의 십대 소녀들이 임신을 하고 있다. 십대 소녀들을 임신시킨 십대 소년들 가운데 85퍼센트가 결국에는 그 소녀들을 버린다.

“...15세부터 19세까지의 미성년층의 사망 원인 중 살인이 그 첫째 되는 원인이다...

“마약을 남용하는 가운데 더욱 강한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술을 마신다.”

이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통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위이다. 음주, 마약 복용, 폭력, 성문란, 행동과 신념의 위기, 성품의 위

청남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여러분은 구원의
천사들의 영향력과 위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족도 이보다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최초로, 1991년 9월호, 1쪽)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만일 그들이 미국 청소년의 주류를 이룬다면, 나는 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청소년들을 설득하고 권유하여 그 주류를 멀리하도록 하고 싶다는 혼자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건전하고 훌륭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세계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상실과 도덕적인 순수함의 포기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훌륭한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께 호소하는 한편, 한 가지 목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진실로 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시대가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세대의 청소년 여러분은 그 위대한 시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시대의 수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고 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이 시대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위안과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과학과 연구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제가 이 축복 받은 시대에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모든 원리와 권세와 축복과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분명한 계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요 구속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상에 내려와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교리와 성약 13:1)를 가진 아론 신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친히 주신 하늘의 권세를 지상에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활짝 펼쳐진 이 위대한 지식과 빛과 진리의 일부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시심을 선포하는 물몬경이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상 매우 훌륭한 이 시대에 지상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남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침례 준 요한이 행사한 것과 똑같은 신권을 받았습시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여러분은 구원의 천사들의 영향력과 위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족도 이보다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십시오.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 권리와 특권과 임무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이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된다면, 또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리와 원리에 순종하여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성도로서 거룩한 기원의 가치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가치관은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와 대화하

는 중에 주님께서 둘 판에 쓰신 계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배운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에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그분의 다른 거룩한 가르침들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굳게 맺어진 윤리의 강령이자 가치관의 강령이며 거룩한 교리의 강령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의 계시를 통한 교훈과 계명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와 율법과 계명이 함께 결합하여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표본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 성장과 성취를 알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열매는 낙담과 슬픔과 참담함과 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관행을 따르는 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의 세상의 친한 요소들을 물리치고 일어서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제력을 알아갈 수 있는 술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심각한 질병을 피하듯이 피해야 하

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결코 음란물을 가까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성적인 자제심의 울타리를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녀들 앞에서 멋진 소년이 되고 싶고, 소년들 앞에서 멋진 소녀가 되고 싶어하는 감정은 거룩한 계획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것은 절제되고 자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많은 위대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부정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가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유사한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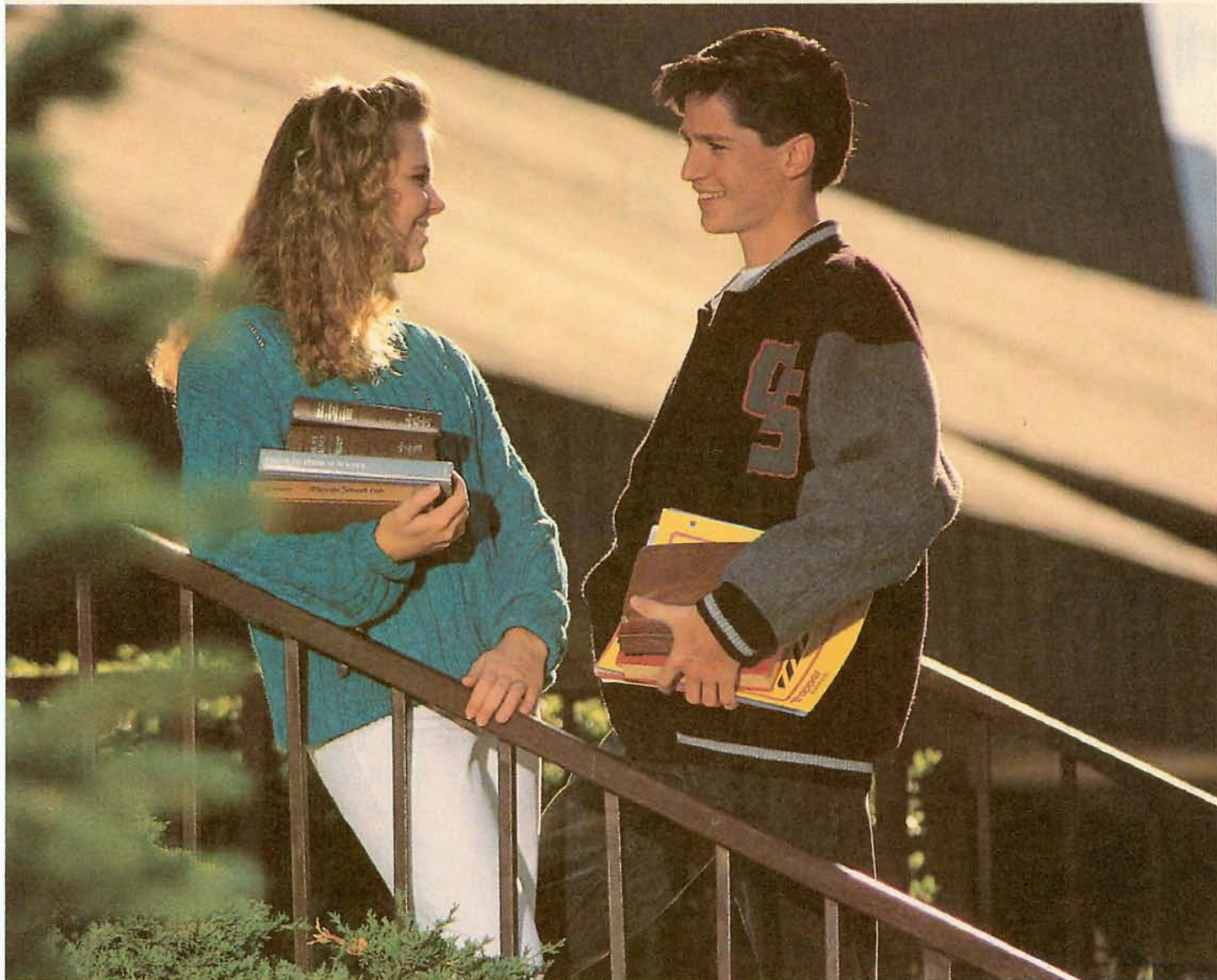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셔서 마련하신 개념과 가르침과 원리에 맞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 낮고 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보느라 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사회에서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



며, 능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곳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위대한 임무들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사회에서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며, 능력을 길고
뉘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는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원리와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이 시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이며,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선택된 세대이다.

3.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 위대한 지식과 빛과 진리가 펼쳐졌다.

4. 평안과 행복, 성장과 성취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천한 요소들을 물리치고 일어서야 하며, 우리가 배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관행을 따라서는 안된다.

5.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실천해야 할 원리를 마련해 주셨다.

6.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르펠 파티카웬

나는 열일곱 살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인 1992년 7월 12일에 침례를 받고, 필리핀 바기오 스테이크 파크 달 워드의 회원이 되었다. 침례는 내가 받았던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생일 선물이었다.

침례받을 때 간증을 가졌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교회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얻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때는 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였다. 내 간증은 여러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의 할머니는 종종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셨다. 할머니는 나와 여동생 밀라가 교회에 가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우리 집은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교통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데 쓰는 돈보다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 백만 배나 가치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때는 동년배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다. 내 친구들 중에는 다른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 네 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종종 우리에게 성

경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내가 물론이라는 것을 알자 그들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팜플렛을 내게 주었다. 그들은 내게 팜플렛을 주면서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이라고 믿었다.

흥미를 느낀 나는 그 팜플렛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관해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읽어감에 따라 교회에 관한 혼란스러운 생각과 의심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여전히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이전에 복음을 배우고 교회에 참석하는 동안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의 혼란은 너무나 커지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마치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물론경 읽기도 중단하였다. 나는 겁이 났다.

마침내 나는 이 혼란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내게 그 팜플렛을 주었던 친구들 중에서 조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마음을 털어놓았다. 기독교인이었던 조이는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이는 기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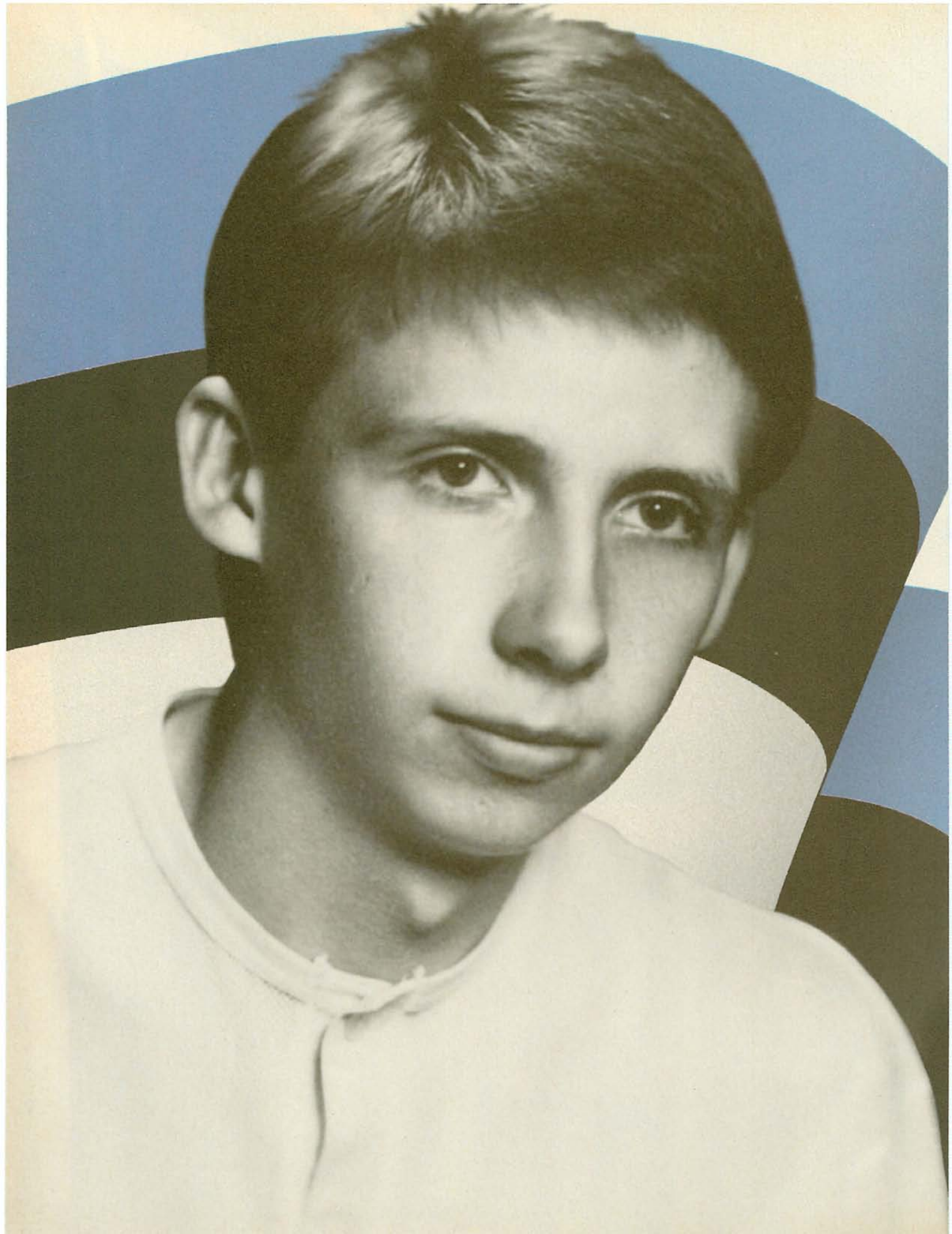
면서 내가 진리를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조이가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나 스스로를 돕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영감을 느꼈다. 조이는 내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았던가? 나는 말일성도지만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에 쉽게 꺾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 느낌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것은 진리다!

마음의 혼란에 빠질지도 모를 온 세상의 교회 청소년들에게 나는 기도할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





에스토니아에 개설된 교회들

증언하도록 선택됨

바르바라 루이스

사진은 가족과 마렌 온스의 허가를 받고 게재함;
그림 : 닐 브라운



에스토니아의 하류마에 사는 야누스 실라가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졸업반 일 때였다. 그는 신을 믿지 않는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아주 어릴 때 그들은 이따금씩 크리스마스에 기독교 교회에 참석했으며 나무에다 촛불을 장식하고 에스토니아의 산타 클라우스인 울루바나를 기다렸다.

최근에 와서 야누스는 장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애쓰면서 처음으로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짧지만 진지했던 그 기도, 즉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떠올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사진관에 나가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술을 배우면서 계속 영적인 진리를 찾았다. 그

동안 정치적인 변화의 영향력은 에스토니아인들의 생활을 조용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정부에 대해 솔직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저녁, 야누스와 몇몇 친구들이 에스토니아 국기를 들고 어깨 위로 펴리면서 애국가 모임에 가던 중이었다. 경찰관들은 국기를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추격해 왔다. 그들이 붙잡혔을 때 경찰관들은 국기를 움켜잡고 찢어 버렸으나 야누스와 친구들에게는 단지 징계만 하였다. 경찰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놀랄 만큼 긍정적인 변화였다.

나중에 야누스는 어머니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하였다. “에스토니아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애국심이 강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이 새로운 따스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1989년, 야누스는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30세의 앤 렘비트를 만났는데 그는 야누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오늘날 예언자가 말한 것에 대해 새로운 간증을 얻었어. 우리 집에 와서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들어봐.”라고 이야기하였다.

야누스는 “오늘날 이 세상에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니!”



에스토니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독립한 발트 제국 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바로 앞을 가로지르는 만으로써 1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조그만 나라이다. 독립을 선언하기 직전에 그 국민들은 국가를 부르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의 애국심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타내 보였다. 현재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선교사들에게 복음에 대해 들을 수 있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엔 렘비트의 아파트로 가서 모임을 가질 때 그는 흥분으로 등뼈가 옥신거렸다.

엔 렘비트는 첫 모임에서 "우리 장인이신 발테리 룯사는 핀란드에서 몰몬 교회로 개종하셨어.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오실 때 몰몬 신앙에 대한 서적을 한 짐 가득히 갖고 오셨어." 그 조그만 방에 모인 야누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할 때 엔 렘비트의 눈은 열리로 빛났다.

모임을 시작한 지 한 시간 가량 되었을 때 핀란드에서 온 사업가인 우시 투바 형제는 그들에게 이 교회가 참된 지를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야누스는 "이 집에서 참으로 좋은 느낌이 느껴져. 그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는 따뜻한 빛을 느꼈으며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믿었다. 야누스는 집으로 가서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함께 에스토니아에서 가진 최초의 성찬식에 참석하였다.

1989년 12월 16일 엔 렘비트는 에스토니아 땅에서 최초로 침례받은 개종자가 되었다. 야누스와 그의 어머니는 1990년 1월 6일에 침례받았다.

야누스와 친구인 우르마스 라브크는 새로 발견한 그들의 종교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들은 거리에서 최소한 5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으며 20가구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선교사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후에 선교사들은 야누스에게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형제님에게 선교사로 활동할 권능을 주었죠?"라고 물었다.

야누스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벌써부터 봉사하기를 강하게 소망했어요. 선교사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선교사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새로 개설된 선교부에서 일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또 우리는 희



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일해요”라고 설명하였다. 핀란드 헬싱키의 동 선교부장인 스티븐 알 미کم 형제는 이것이 교회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전도 활동은 범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했다. 그때부터 야누스와 우르마스는 선교사와 함께 일하였다.

에스토니아는 1990년 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납되었다. 그해 6월 29일에 에스토니아 정부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 에스토니아 지부의 지부장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 회원이 그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کم 선교부장은 야누스에게 교회의 대변인이 되어 종교부 장관 앞에서 증언하고 청원서에 서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야누스는 당황하였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کم 선교부장은 “형제님이 훌륭한

지도력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님이 그 서류에 서명하도록 공인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야누스는 종교부 장관 앞에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하는 합법적인 교회이며, 교회의 프로그램들은 정부의 어떤 법률과도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이 에스토니아의 첫 교회 모임과 공식적인 첫 성찬식에 참석했던 사람이며 최초로 침례받은 청소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펜을 집어 들었다. 스무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서명 아래에 연서하였다. □

야누스는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현재는 유타 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젊은 사자들: [비범한 용기를 지닌 평범한 소년들, 데저렛 출판사, 1993년]에서 발췌)

맨 왼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넬슨 장로(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은

1990년 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에스토니아를 헌납하였다. 당시 유럽

지역 회장이었던 한스 비 링거 장로

(가운데 서있는 사람)가 그를 도왔다.

야누스는 왼쪽에 무릎을 꿇고 있다. 왼쪽

위: 야누스가 선교사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위: 복음선교사

로서 봉사한 야누스는 귀환하여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웃을 일이 아님

카밀레 누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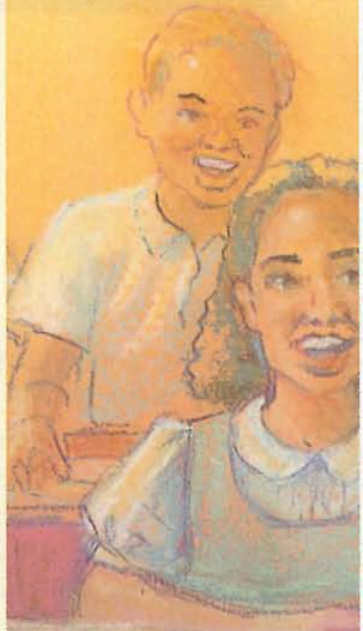
어느 날 자메이카에 있던 한 학교의 사학년 종교반 시간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종교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그 예비 학교에서 유일한 몰몬이었기 때문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도록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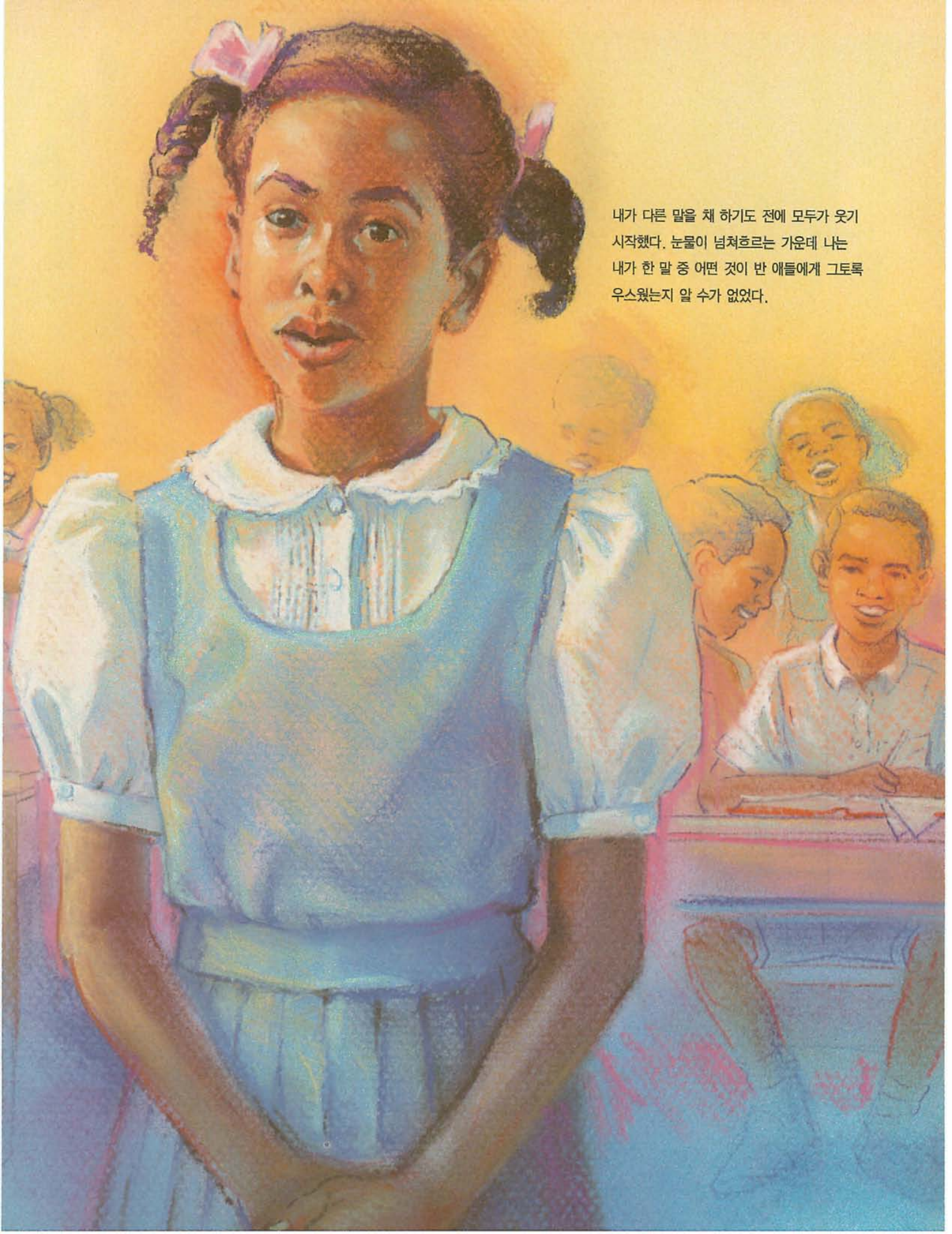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경험이 별로 없었으며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발표하기 위해 일어난 나는 그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우리의 신조 중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나는 먼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찬식과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위해 빵과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내가 다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나는 내가 한 말 중 어떤 것

이 반 애들에게 그토록 우스웠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얼른 눈물을 닦아내고는 “빵과 물, 빵과 물”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 놀림거리가 되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무척 기뻐했다. 그렇지만 반 애들이 왜 나를 놀리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하였다.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선반에 있던 어머니의 커다란 성경책을 끄집어내어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 어떤 페이지를 넘기면서 얼핏 한 성구를 보고는 그 페이지를 다시 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을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한 누가 나를 비웃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





내가 다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나는 내가 한 말 중 어떤 것이 반 애들에게 그토록 우스웠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거룩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예전에 알던 것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잘 압니다. 가치관들이 변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과 선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암흑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에게는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성구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교리와 성약 50:1) 영의 음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주님은 “영은...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리와 성약 84:46)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더 나아가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약 84:47)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리는 것”은 “영”(고린도후서 3:6)이라고 분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영을 통해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으시겠습니까?



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구세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한복음 6:63)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아서 5:22~23)가 영의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도취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배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랠프 왈도 에머슨은 “도덕적인 성실함은 영구적인 승리이며, 기쁨의 외침으로서가 아니라 평온함과 변하지 않는 또는 계속적인 기쁨으로 찬양되는 것이다.”(“성품”, 랠프 왈도 에머슨의 완결된 기록 중에서, 뉴욕:더블류 엠 에이치 와이즈 앤드 컴퍼니, 1929년, 268쪽)고 말했습니다.

리하이는 아들인 야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니파이서서 2:25) 이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교리와 성약 50:1)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쁨이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온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니파이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니파이서서 5:27)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세계 도처에서 교회가 세워진 많은 나라

의 회원들은 저의 간증에 자신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화평과 희망과 사랑과 기쁨이 영의 은사로 약속된 것을 입증하는 풍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은사들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음성들도 듣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영의 음성과 겨루는]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고린도전서 14:10)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황입니다. 영의 음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은 고요합니다. 이사야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이사야 32:17)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시끄럽고 끈덕지며 설득력있고 호소력있는 수많은 음성으로 이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한 음성에는 불의한 일을 그럴싸하게 미화시키려고 속삭이는 소리, 도전과 일을 거부하는 불평의 소리, 육체적인 쾌락을 부추기는 유혹하는 소리, 우리를 달래어 육체적인 안정만을 취하게 꺾이는 소리, 궤변과 우월함을 주장하는 지적인 소리, 육신의 권세에 의존하도록 충동하는 교만한 소리,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아침 소리, 희망을 짓밟는 냉소적인 소리,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흥겨운 소리,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버리”고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니파이서 9:51)도록 유혹하는 영리위주의 소리, 욕망을 “도취 상태”로 까지 만드는 흥분된 소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도취 상태뿐만 아니라 오직 스틸을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하여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조차도 너무나 귀중하여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 주님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한번 가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죄에 대한 지식은 그것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복음 교리, 373쪽)라고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실마리를 안겨 주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살아가는 방법, 그들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방법, 그 모든 것을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수많은 음성을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은 500개나 됩니다. 온갖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을 하는 컴퓨터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게시판이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출판물과 인공위성 수송기 및 보도기관들이 그들에게 숨막힐 만큼 많은 정보를 전해 줄 것입니다. 지역의 유선 뉴스 방송국은 지역 뉴스만을 알려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욱 치밀한 감시하에 놓일 것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장소는 더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악과 부도덕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숙고하면서 저는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 있는뇨?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 있는뇨?”(완성된 시와 희곡의 “바위”에 나오는 합창, 1909~1950년, 뉴욕:하코트, 브레이스 앤드 월드 회사, 1971년, 96쪽)라는 티 에스 엘리엇의 말을 떠올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속아서 비탄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예레미야 31:33)라는 약속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충실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아마 손수레로 대평원을 횡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미국 변경의 광야에서 죽으면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들의 손수레는 서부로 그대로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영혼에 대해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죄의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복리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희망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조정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가지며, 즉시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성급한 욕망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물론경은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을 이익, 육신의 권세, 인기 및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의 네 가지 범위로 밝혔습니다. (니파이일서 22:23 참조)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니파이인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사탄의 전술은 “저들의 마음을 진
리에서 떠나게 하며 저들을 눈멀게
하여 저들을 위하여 준비된 일을 깨
닫지 못하게 하”(교리와 성약 78:10)
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
리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릴 연막을 피웁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그분의 약속은 문자 그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문제는 인간의 영의 원수가 사람
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들의
눈에 먼지를 던지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눈
멀게 되는 것입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복음의 표준, 솔트레이크
시티:임프로브먼트 이라, 1969년, 44~45쪽)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귀기울이고 믿을 음성을 어
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개인에 미칠 영향은 지대
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행사함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아멜레카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절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한 것이 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악마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음이라.”(욥
나이사서 1:25) 매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과 악마
로부터 말미암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계속하여 요구받
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듯이
매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매일마다 영원



그림 : 이븐드 프라이버그. 서반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한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교회와 주
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역시 “죄로 인도하고 유혹하
는 것들과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모로
나이사서 7:12~13) 그런 다음 그는 다
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
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며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
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좇
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모로나이사서 7:18~19)

우리는 빌려 온 빛으로 인생의 행로를 지나갈 수 없을 것
입니다. 생명의 빛은 바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
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음성은 영의 음성입
니다.

인생의 목적을 숙고함

둘째,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
람들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
으로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종말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6:7 참조)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
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
리니”(교리와 성약 88: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
는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야고보서
1:8)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올슨 하이드는 “마음을 집중
시켜서 전능한 권세를 갖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필멸의 장막
을 입은 하나님의 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여 한 가
지 목적에 맞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설교집, 7:153)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니파이인들 중 조금 더 의로웠던 사람들은 그들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니파이삼서 11:3)

두번째로 들었을 때도 그들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들었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귀가 열려 듣게 된지라,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 곧게 하늘을 우러러보매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니파이삼서 11:5)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엘리사를 살펴보듯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함께 보낸 많은 병사들이 밤에 그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예언자의 종은 엄청난 수의 병사들을 보고 겁에 질려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엘리사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기하 6:15, 17)

겁에 질린 사환의 물음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6)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한 엘리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간증을 강화함

세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던 한 훌륭한 청년은 축복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많은 선조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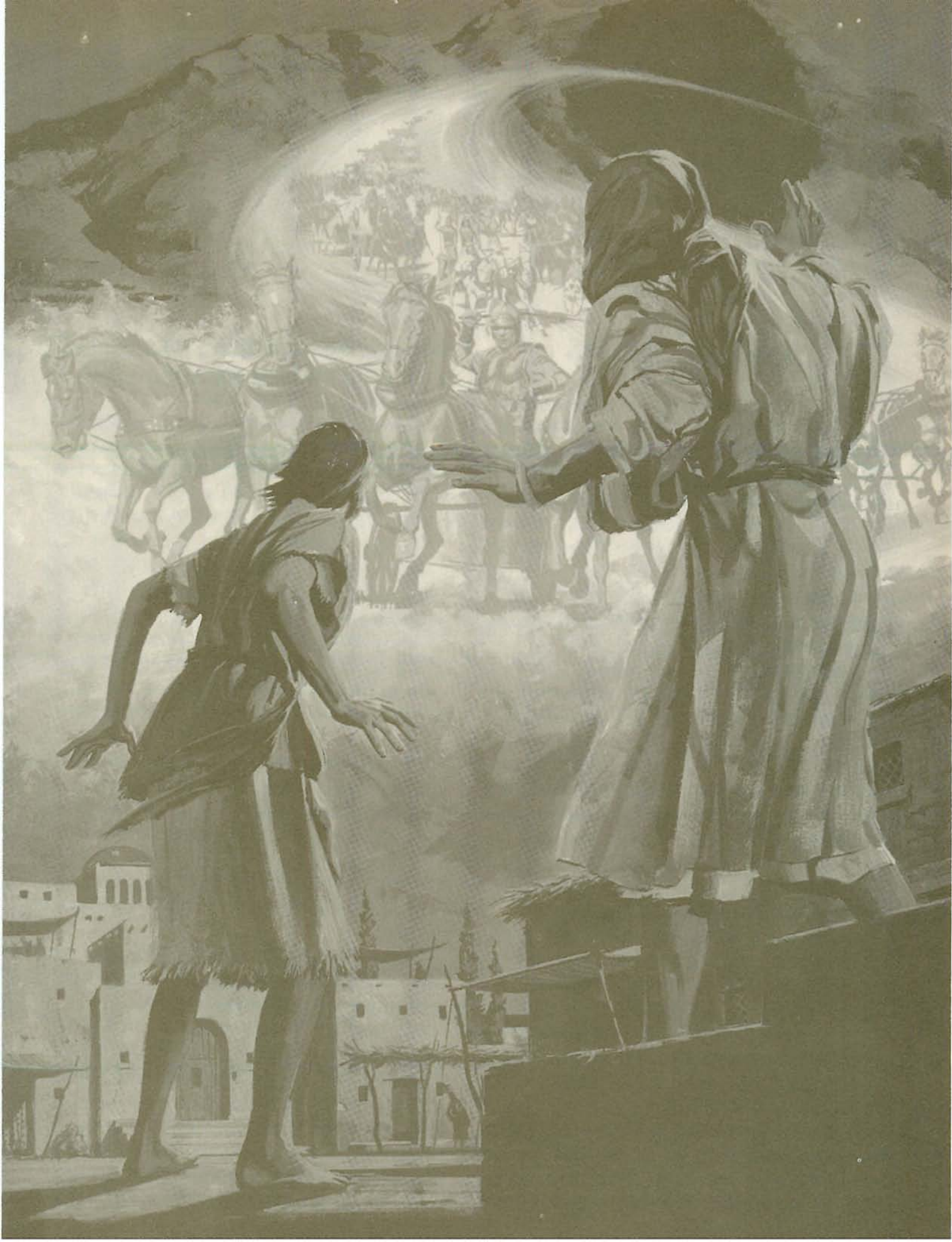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배우면 우리의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행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켜 줄 영적인 경험이 마음속에 확인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운명을 지녔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판장은 “오늘날 교회의 여성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의로움에 대적하는 힘이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이 없으며, 우리의 최고의 가능성을 성취시킬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적도 없습니다.”(여성,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판사, 1979년, 2쪽)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바울이 말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영적인 은사를 아주 풍성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13 참조) 그러므로 양육자와 교사 및 가족과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위있는 감화자로서 여성다운 고귀한 미덕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의 일부입니다. 여성은 경주를 빛내어 주는 가장 영예로운 장식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에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앨마서 12:32)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켜 줄 영적인 경험을 마음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기하 6:17)



경전을 공부하고 권고를 따름

네번째로 우리는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교리와 성약 68:4)는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으나...그런고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35~36)

다섯번째로 우리는 총관리 역원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확신을 얻고 그들의 권고를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이 세대의 여러분들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선택되었으며, 이 시대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전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것임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둔감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귀기울이고 지켜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들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속적이고 훌륭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십시오. 청남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에 참되고 충실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하늘의 기쁨과 필적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일을 피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잘못되는 것보다는 홀로 의롭게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표준을 지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표준을 조금 떨어뜨리거나 다소의 실수를 저지를 지경까지 이를지라도 결코 사탄으로 하여금 그들을 낙담시켜 자신의 자긍심까지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

여란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주 읽고 또 부모님과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며 또 의로운 청년이 되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데이트를 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며, 자신과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권고합니다. 청소년들은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거짓된 교리가 스며드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 나은 명칭을 원한다면 저는 그것을 “계획적인 회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후에 회개할 생각을 지니고 의식적으로 죄를 지어도 성전 결혼이나 선교 사업과 같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교리입니다. 점점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악을 장난삼아 희롱하면서 그것에 오염되지 않기로 더욱 힘든 일입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계획적인 회개의 어리석은 교리를 예견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 이서 28:8)

주님은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성도들의 피가 땅으로부터 저들의 행악을 주께 고하여 부르짖으리니.”(교리와 성약 28:10)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강박한 마음을 지닌 것 때문에 주님이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징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민수기 21:6 참조) 또한 주님은 사람들이 그 뱀에게 물린 후 낫게 할 방법도 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는 단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민수기 21:8-9 참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것이었으며 “그 방법이 극히 간단하고 쉬워 도리어 죽은 자가 많았”(니과 이일서 17:41)습니다.

영의 음성을 따름

.....

저는 우리가 스스로 파장을 맞춰야 하는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인기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해결책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시끄럽고 쉼 새 없으며 신속하고 번쩍거리며 노골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세상에 비해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미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년배들이 육체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에게 명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알고...항상(우리로) 생각하게”(베드로후서 1:12) 합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소한 수많은 정보를 기억할 가치가 없는 때에 이것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강렬하고 다양하며 새로운 것이 없으면 쉽게 싫증을 내는 세상에서 “영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따른다는 이 해결책”은 한결같이 일관되고 오래된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세상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4:18; 5:7 참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에 오로지 의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영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따른다는 이 해결책”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세상적인 권세를 주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



사진 촬영 : 스티브 번더슨

우리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사야 30:21)입니다.

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고린도 후서 4:17)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것들을 상고하고 그 속삭임에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내는 장

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사야 30:21)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교리와 성약 50:1)에 귀기울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교리와 성약 59:23)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4:7 참조)

저는 다음과 같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3:14, 16-19)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한 영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몰아치는 악에 대항하여 굳건하게 서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서 곧고 똑바르게 서야 할 현 시대를 위해 예비된 영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앞에 놓인 이 위대한 사업에 참되며 충실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

페리와 야나 브렛



첫 아이가 어릴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물론경을 직접 읽어 주려고 특별히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섯 아이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 매일 밤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함께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를 읽었다. 니파이와 낫쇠판, 숲에서 기도드린 이노스, 아빈아다이의 간증과 그의 화형, 엘마이세의 개심,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예수님 등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계속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경전의 언어에 익숙해졌다. 경전을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는 단어나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읽기를 멈추곤 했다.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구절의 흐름과 느낌을 느끼도록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읽어 나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물론경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느끼는 것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경전을 읽은 후에 우리 아들인 스펜서가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 참 좋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왜 좋은 느낌이 들지?”라고 물었다.

스펜서는 “제가 성신을 느끼니까요.”라고 대답했다.

198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이 담긴 메리온 지 림니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나는 만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기도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물론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될 것임을 확실히 느낍니다. 경전의 영이 증가되고 상호간의 존경심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분쟁의 영은 사라질 것입니다...의로움이 증가될 것입니다. 신앙,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생활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정신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6쪽)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계속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많은 약속이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을 알았다. □

“더욱 순결하게 됨”

“너희 자신...거룩하게 될지이다. 참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내 앞에서 손발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희를 순결하게 할지이다.”(교리와 성약 88:74)

영성이 크게 무르익으면서 제이라 헤물라 백성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 주님의 사업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힐라멘서 3:20~34 참조) 이같이 놀라운 시대가 열린 한 가지 이유는 교회 회원들의 마음이 순결한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음

힐라멘서는 제이라헤물라 백성들이 순결하게 되는 과정을 약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힐라멘서 3: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28절)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말씀”(29-30절)을 붙들었다고 말해 준다. 겸손은 금식과 기도처럼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35절)

이러한 것은 우리 역시 자신의 생활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순결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성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구세주의 속죄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고 성신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니파이삼서 27:19-20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에 따라 더욱 용기있게 행해야 합니다...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죄없



는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7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주셨다. (마태복음 22:37-40) 사도 바울은 사랑이 “청결한 마음”(디모데전서 1:5)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보께에 두 닢의 잔돈을 던져 넣은 가난한 과부는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 (마가복음 12:42-44 참조)

오늘날에도 이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하몬드 자매는 볼리비아 선교부를 관리하는 남편

인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현재 칠십인 정원회 회원임)와 함께 봉사하였다. 그녀는 그 곳에서 교회에 가입한 한 자매에 대해 말하였다. 하몬드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매우 충실하였어요. 그녀는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고 한 달에 한 번씩 24시간 금식을 하였어요. 저는 그녀가 지명받은 열한 명의 자매에게 방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관절염으로 발목이 부은 상태로 안데스산의 기슭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매달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녀는 지명받지 않은 여분의 일도 더 했어요. 만일 방문한 자매가 집에 없으면 그녀는 산을 올라가서 다시 방문하곤 했어요.

“그녀는 선한 목자이신 구세주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역시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의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먹였어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의식을 받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즉시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애 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이서 2:7)으로 구세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속죄가 우리의 생활을 깨끗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케 할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속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순결함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

체코슬로바키아는

루스 맥콤버 프렛과
앤 사우스 언도르프

프란체스카 베셀라는 1881년에 남보헤미아(현재의 체코 공화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한 가족의 열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는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신앙심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 영향은 일생을 두고 그녀에게 힘의 근원이 되었다.¹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8세의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가서 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그 곳에서 1904년에 프란체스크 브로딜과 결혼하여 프란체스카(프란시스)와 야나(제인)라는 이름의 두 딸을 낳았다.

1913년에 그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우고 다뉴브 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의식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깊은 밤에 집행되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벅찼으며, 새로운 힘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교회에 항상 우호적”이었지만, 결국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프란체스카가 회복된 복음 속에서 새로이 발견한 기쁨은 일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꺾이게 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와 소수의 비엔나 자매들은 성경 연구반을 열었으며 “모든 형제들이 전쟁터에 가있고, 선교사들은 고향으로 불려간 사이에 복음의 빛은 그 곳에서 계속하여 타올랐다.”²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일하는 체코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 교체될 때 프란체스카의 남편도 직장을 잃었다. 그는 1919년에 가족을 데리고

프라하(새로 형성된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사갔으며, 그 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

과부와 어린 두 딸에게 인생은 힘든 것이었다. 낯선 도시에 혼자 남아 오로지 오빠가 보내주는 적은 액수의 돈만으로는 간신히 굶주림만 면할 수 있었다. 이 년 동안이나 교회 회원들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 역시 심했다.

1921년에 프란체스카가 독일-오스트리아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받고 비엔나에서 두 명의 장로가 그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그녀의 두 딸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그 두 딸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최초로 침례받은 회원이 되었다.

프란체스카의 성실한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갔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딜가에는 복음이 너무나 철저하게 배어들어서 프란체스카의 딸인 프란시스는 자신이 교회에서 자랐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다시 그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십 년간 기도한 후 프란체스카는 교회의 대관장단에게 편지를 쓰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일로서 현재의 정책은 지역 지도자와 접촉하도록 장려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제게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마지막 노력이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나머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³

반갑게도 프란체스카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1929년 7월 2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브로딜가 앞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헌납하고 아더 케이스를 선교부장으로 한 체코슬로바키아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프란체스카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우리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프란체스카는 말년에 선교사들을 “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선교사 소책자를 번역하는 것을 도왔고, 선교사들이 체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일학교 반을 이끌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최초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프란체스카 브로딜로바는 1931년에 세상을 떠났다. 케이스 선교부장은 다 음과 같이 그녀를 칭송하였다. “그리스도와 같은 브로딜로바 자매의 정신은 쉬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그녀는 우리에게 어머니며 조연자며 모범이었습니다.”

훗날 케이스 선교부장의 말은 예언이었음이 입증되었다. 프란체스카의 어머니 같은 영향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케이스 선교부장은 1936년에 그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윌레스 터론토가 그 뒤를 이었다. 이차 세계 대전의 어려운 시기

그녀의 선교부였다

를 넘기면서 터론토 선교부장은 교회 역사상 어떤 선교부장보다도 오랜 기간인 32년을 봉사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40년이 훨씬 넘게 공산 정권의 지

배를 받았으며,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다. 터론토 선교부장은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체코 성도들을 단지 멀리서만 도울 수 있었다.

1968년에 터론토 선교부장이 세상을 떠나자 윌리엄 사우스와 그의 아내는 체코 회원들이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우스 선교부장의 아내는 제인 브로딜 사우스로서 프란체스카의 딸이었다. 1977년에 사우스 선교부장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켈빈 맥콤버와 그의 아내인 프란시스 브로딜 맥콤버가 그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청받았는데 프란시스 역시 프란체스카의 딸이었다. 그들은 1980년에 맥콤버 선교부장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직분을 수행하였다.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십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프란체스카 브로딜로바가 보여 준 신앙과 인내의 모범은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앞으로 올 세대에 유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달리 언급되지 않은 인용문은 아더 케이스의 "선교부를 세운 기도"에 나옴, *밀레니얼 스타*, 1932년 3월 31일, 193-97쪽.

2. "프라하 선교부의 어머니 별세", *처치 뉴스*, 1932년 2월 13일, 2쪽.

3. 제인 브로딜 사우스와 블랑슈 사우스 폭스, "선교부를 세운 기도", *도로시 사우스 해크워스의 주님의 손길*, 2권 중에서(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1년, 1988년), 1:277.

4. 칼라일 메어의 "체코 성도들: 더 희망찬 날" 참조, *엔사인*, 1994년 8월, 46~52쪽.



결혼 생활과 산상 수훈

폴 케이 브라운

몇 년 전에 릭과 제인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허물어뜨리는 차이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상담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취급받아 왔던 면에 대해 말했다. 서로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상담자에게는 그들이 도저히 화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 부부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산상 수훈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산상 수훈을 “완전한 생활을 위한 헌법”(성공적인 삶을 위한 결정,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57쪽)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였다.

상담자는 그 부부에게 성경을 건네준 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펴보라고 하였다. 그는 “이번 주에 두 사람이 함께 산상 수훈 전부를 소리내어 세 번 읽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읽은 후에도 매일 그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활에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최소한 한 가지씩 정하겠습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변해야 할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렇게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 그들은 서로 다정하게 상담자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좋은 일이 최소한 세 가지나 일어났다. 첫째, 함께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다시 영을 찾게 되었다. 둘째, 그 과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배우자의 동기와 태도보다 자신의 동기와 태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 과제를 완수하였다.

산상 수훈은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결혼 생활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원리를 가르쳐 준다. 나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로 용서함

리처드와 캐롤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들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상담자를 만나러 왔을 때, 캐롤은 리처드가 무정하고 교활하며 경솔하고 성미가 까다롭다고 불평하였다. 상담자는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리처드에게로 몸을 돌렸으나 놀랍게도 리처드는 캐롤의 말이 맞다고 하였다. 후에 그는 리처드의 자존심이 매우 낮으며,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캐롤과 자녀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리처드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몹시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상담자는 다음 해에 리처드가 점차 친절해지고 더욱 사려깊어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리처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기뻐하면서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적개심이 릭과 제인의 결혼 생활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산상 수훈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해는 사라지게 되었다.



고 캐롤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였다. 과거에 리처드가 캐롤을 불쾌하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그러나 캐롤은 마음속 깊이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리처드와 캐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악감정을 품고 있으며,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들어서 서로를 질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기꺼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는 대화를 막게 되며, 서로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태복음 6:14~15)

결혼 생활은 리처드와 캐롤의 경우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붕괴될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회하라”(마태복음 5:25)는 대안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배우자에게 양보해야만 한다거나 배우자가 우리를 이용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충할 부분을 찾거나 배우자의 행동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동기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에게는 모

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10)고 말씀하셨다.

용서하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본다.
2. 배우자와 입장을 바꿔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3. 배우자의 모든 장점을 생각해 본다. 거의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많을 것이다.
4.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느낄 때만 말한다.
5.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문제는 잊어버린다.
6. 영을 구한다. 성신은 여러분이 용서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십리를 더 동행함

짐과 매리엔은 그들 중 누가 더 결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이 50-50의 관계일 때만 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둘 다 상대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에 관해 끊임없이 다투었다.

구세주께서는 오래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

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40-42)

짐과 매리엔이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에서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로 초점을 옮기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향상되기 시작했다. 물론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다.(모로나이서 7:45, 47 참조) 이렇게 하기 위한 원리는 산상 수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짐과 매리엔은 그렇게 하기 위해 각자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매리엔은 낭만적인 성격으로서 사려깊은 쪽지와 꽃을 이따금씩 받고 말로써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반면에 짐은 집안의 물건들을 고치고 정원을 깔끔하게 돌보며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으로써 가장 훌륭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중 어느 것도 훌륭한 방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공정하게 보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만들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고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3. 배우자의 필요 사항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4. 각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배운다.

“비판하지 말라”

프레드와 진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사고자 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쇼핑을 하러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해 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두 사람 다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으나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다. 다음

날, 프레드는 혼자 그 가게로 다시 가서 진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그것을 샀다. 그리고 그는 진이 집에 없을 때 그것이 배달되도록 조정해 두었다. 진은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을 보고 당황하였다. 그녀는 프레드 혼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를 경솔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투게 되었다.

비판은 종종 결혼 생활에서 다툼의 원인이 된다. 프레드와 진의 경우에서 처럼 언제나 비판은 그릇된 억측에서부터 시작된다. 억측과 비난은 모두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산상 수훈에는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복음 원리들이 있다. 그러한 것에는 용서, 봉사, 인내, 경청, 겸손 및 사랑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1-3)

배우자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 자신에게 왜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가 나를 그토록 화나게 하는가?라고 물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마태복음 7:5)고 배우자의 결점을 더 적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대화 통로를 열어 둔다. 정기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은 중대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더 적다.

2. 배우자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3. 잘 모르는 것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준다.

4. 사람마다 장점과 약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속도로 발전한다.

5.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제심을 발휘함

존과 캐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갔다. 캐시는 “존은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는 항상 화를 내지만 저는 언제나 그가 왜 화내는지 알지도 못해요.”라고 말했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존의 감정은 서서히 흥분되었다.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서서 아내에게 “난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야!”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는 창백한 표정으로 떨고 있는 캐시를 남겨 둔 채 방에서 나가 버렸다.

화가 나 있을 때 영을 동반하기란 불가능하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니파이삼서 11:29)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정에 분노의 정신이 자리잡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족 개개인들을 이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여움은 이기심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가장 나쁜 정서만 돌구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노여움에 대비되는 말씀을 하셨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태복음 5:22)

이 성구가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한다. 가족들은 얼마나 자주 서로를 흠잡고 비난함으로써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노여움의 대안은 자제심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무례한 행동을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재빨리] 날카롭게[분명하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1, 43)

열쇠는 자제심과 사랑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키우는 데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노여움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자문한다. 비판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비판하지 않는다.

2. 책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재빠르고 분명하게 바로잡는 원리를 행사하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

3. 비난하는 일을 피하며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피한다.

4. 다른 생활면에서도 자제심을 키우도록 한다.

5. 생활하는 데 성신을 동반하도록 노력한다. 주님의 영과 분노의 영을 동시에 지닐 수는 없다.

산상 수훈은 도움이 될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산상 수훈과 관련된 다른 복음 원리들이 있다. 그러한 것에는 봉사, 인내, 경청, 겸손 및 사랑과 같은 원리들이 포함된다.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속성을 키우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가장 굳건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창세기 2:24)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지니지만 그들의 생활과 마음은 서로 융화된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단결을 이루고 배우자에게 봉사하는 데 “이기심”을 극복해 나갈 때 성신의 은사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가 단결되면 단결될 수록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욱 천국처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구세주께서 산상 수훈에서 밝히신 다음과 같은 이상에 더욱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

내 옆의 천사들

라라 마요 뱅거터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멈춰 세우고 교회에 관해 말해야 할 차례였다. 독일에 온 지 겨우 이틀 밖에 되지 않은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선교사로서 나의 부름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

나는 길가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줄 만한 사람을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찾아 보았다. 나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지 막막했다.

나는 동반자에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고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하려고 했던 질문을 하기는 커녕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는 도망치듯 돌아섰다. 거부당하리라는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으므로 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 생각을 가다듬었을 때 몹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고 싶었다. 결국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것으로 인해 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었다.

불행히, 시일이 흘러도 나의 약점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나는 결코 행복하고 용감하며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없을거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내

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주요한 주제는 대부분이 나의 약점에 관한 것이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지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싸늘한 어느 봄날 아침, 동반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바닥에 앉아 선교 사업에 관한 성구를 찾아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교리와 성약 84편 88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나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누구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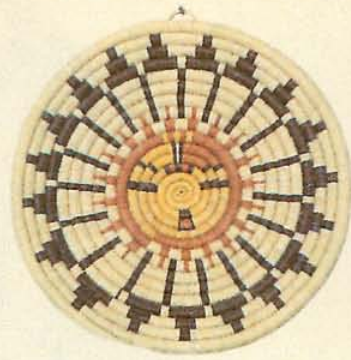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임이므로 너희 오른쪽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도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오른쪽과 왼편에 계셨으며, 그분의 천사들은 나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내 주위에 있었다. 그날 아침부터, 두려움의 과도가 나를 엄습할 때마다 나는 그 천사들이 나의 구도자와 나의 동반자와 나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내가 그러한 지원을 받고서도 패배할 리가 없었다. □



남

말일성도



타와 쿠치누, 칭칭 감긴 장식판, 제작자 미상, 태양을 나타내는 이 호피 족 액자는 유카 나뭇잎으로 짜여져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장식판은 결혼 선물로 사용되었다.

위: 비와 우박, 1978년, 크리스틴 앨런의 모래 판화, 고대에는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래 판화를 제작했다. 오른쪽: 혼인 항아리, 1983년, 헬렌 나하의 내화 점토 작품, 항아리의 입구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신부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신랑을 나타낸다. 이것은 신랑 신부가 결합하여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서

성스러운 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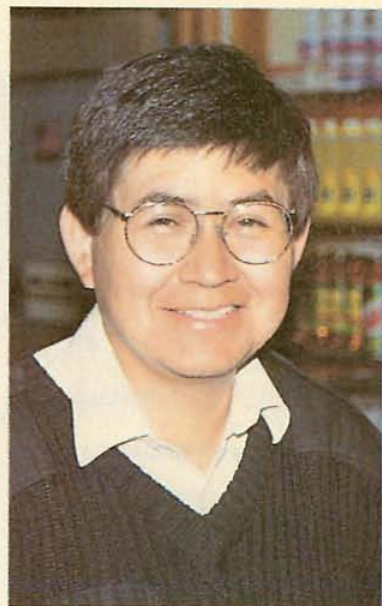
미 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나바호 족 및 호피 족 인디언들에게는 풍부한 예술 유산이 있다. 말일성도인 아메리카 인디언 예술가들이 창작한 많은 예술품에는 그 예술가의 생애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 있다. 그 영향력이란 뉴멕시코 북부 및 애리조나 주의 나바호 족 인디언들이 호즈호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유대이다. 호즈호는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신앙개조 제13조 참조)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호즈호는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균형잡힌 생활이다. 나바호 족 예술가인 해리슨 베게이는 이렇게 말한다. “말일성도로서, 저는 호즈호 안에 잠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주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호피 족 인디언들은 그들 종족의 이름이 곧 그들이 창조주를 숭배함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헌납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으며, 우리는 언젠가 이에 대해 그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한 호피 족 예술가는 말한다.

말일성도 나바호 족 및 호피 족 예술가들의 선정된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일생 동안 봉사하고 있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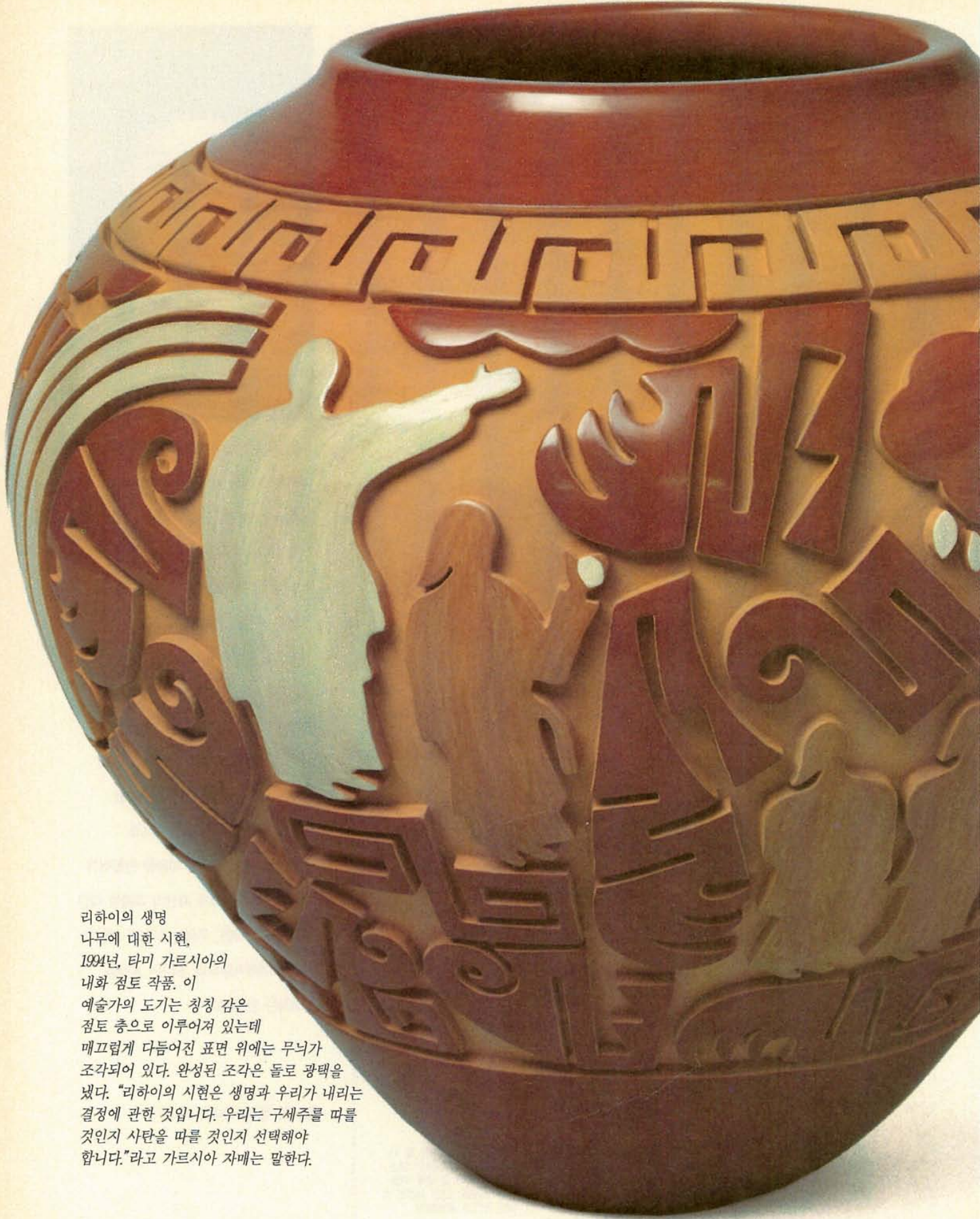


"예술가는 생명이 없는 물건을 갖고서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생명이 넘치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이 현실적이든 추상적이든, 이차원적인 것이든 삼차원적인 것이든, 그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제가 전세계 말일성도 예술가들에게 충고를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저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온전히 생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윌리엄 해취, 나바호 족 화가

본 기사를 위한 자료 및 사진들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이 제공함. 모든 사진은 로널드 리드가 촬영했음.



리하이의 생명
나무에 대한 시현,
1994년, 타미 가르시아의
내화 점토 작품. 이
예술가의 도기는 칭칭 감은
점토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 위에는 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완성된 조각은 돌로 광택을
냈다. "리하이의 시현은 생명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따를
것인지 사탄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시아 자매는 말한다.

호피 족 도기 제작자들은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다. 점토는 언덕에서 채취하고, 식물을 끓여 페인트를 만든다. 유카 나뭇잎은 솔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조롱박은 굵은 도구로 쓰이기 위해 재배된다. 나무가 없는 환경 때문에 도기를 굽기 위해, 양의 대변이 사용된다.

인디언 예술을 창작하는 것은 남페요 가족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세대를 함께 묶어 준다. 에드워드 커티스가 1895년에 찍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남페요는 숙련된 도기 제작자였는데, 그녀의 후손들은 지금도 자신의 작품에 그들 이름 가운데 성의 일부로써 남페요라고 서명함으로써 그녀에게 존경을 나타낸다.



사진: 에드워드 커티스

왼쪽: 이주 무늬 도기, 1952년, 파니 남페요 폴라카의 이 작품은 호피 족 인디언이 에리조나 주 북부로 최후로 이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호피 족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들은 에리조나 주 남부의 따뜻한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 갈대 보트를 타고 배를 건넜다고 한다. 아래 오른쪽: 톰 폴라카의 개종, 토마스 폴라카 작품. 토마스는 그의 할머니의 영적인 여정과 침례를 묘사하고 있다. 톰의 입에서 나오는 깃털은 기도를 의미하는 호피 족의 상징이다.



“저는 영광의 세 등급(교리와 성약 76편 참조)을 묘사하는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양의 기초를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통적인 키바 인디언 벽화 및 그림에서 따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그 이야기를 그들의 유산의 일부로써 알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기를 만들면서 그 유산을 생각하며 말일성도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으로서 저의 발전 과정을 도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모래로 문지르고 연마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때때로 저는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제 자신이 '모래로 연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창작 단계에서 도기가 불로 정화되듯이, 온 땅이 불로 정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레스 나밍하, 도기 제작가



사진 촬영 : 허워드 레이니

"남서부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에 반영되어 있는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연결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며 생활의 질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복음의 일부이기도 한 남서부 인디언 문화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창조주에 대한 경건, 가족에 대한 사랑 및 이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과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사람들에게로 연장되는 가족 유대가 포함됩니다."

"저는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눈길을 창조주로 향하게 하도록, 우리가 영과 동반하여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피 레이너 이셔, 플루트 제작자 겸 음악가



사진 촬영 : 허워드 레이니

위: 나바호 족의 전통적인 활동 중심 지역인 애리조나 주 윈도우 록의 사진. 오른쪽: 영광의 세 등급, 1991년, 필 세카광태와의 목걸이. 은빛 깃털 위의 해, 달, 별들은 인간의 사후 영광을 나타낸다고 제작자는 말한다. 깃털의 중심 깃축은 가장 높은 왕국을 대표한다. 작가는 그보다 낮은 왕국을 나타내기 위해 유리를 사용했으며, 가장 낮은 왕국을 표시하기 위해 산호를 사용했다."

폭풍우 무늬 융단, 1980년, 로즈 케이스 작품, 중앙의 정사각형은 가정, 즉 호간을 나타낸다. 이것은 나바호 족 전통에서 성스러운 네 산의 각각에서 나오는 번개를 맞고 있다. 번개는 사막의 환경에서 비의 축복을 상징한다."

가나도 스타일의 나바호 족 융단, 1991년, 엘노라 티시아트 작품, 호즈호, 즉 균형과 자제력이 연합된 아름다움과 역동적 힘에 대한 나바호 족의 가치관이 이 정교하게 짜여진 융단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가나도 스타일을 따라 그 직조 공예가는 회색과 흑색 양모를 위주로 하고 적색 양모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대칭되는 다이아몬드 형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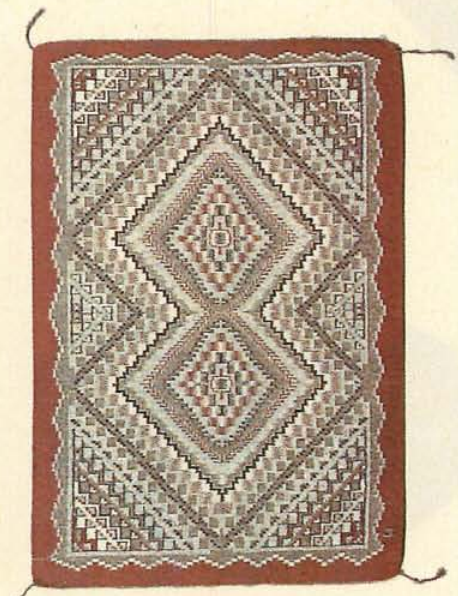






사진 촬영 : 마이클 맥공키

“태초에, 지구는 영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별들과 공칭이 함께 만들어졌고, 태양은 낮을 비추도록 창조되었고 달은 밤을 비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신 ‘옛 사람들’은 오래 전에 그들이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름다움 가운데 행하고, 행복 안에서 걸으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의롭게 살며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호즈호를 누릴 것입니다.”

레타 케이스, 나바호 족 직조 공예가



위: 인디언 거주 지역의 선교사들, 1985년, 레타 케이스가 손으로 짠 양모,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처음에 브리검 영 대관장에 의해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보내졌다. 케이스 자매는 그녀와 그녀 가족이 살았던 애리조나 주 모뉴먼트 밸리의 사막같은 환경에서 생활했던 근대의 선교사들을 묘사한다. 옆 쪽: 우데 가족, 1994년, 올랜드 조가 유타 주 석고로 조각한 작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언제나 가족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 조각에서 남자가 입고 있는 길고 험거운 옷은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의 옆에 그의 아내와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옥수수 단지, 1994년, 이리스 윌라 남페요의 도기 작품. 호피족의 일원인 이리스는 그녀의 어머니인 파니와 그녀의 할머니인 남페요로부터 정묘한 도예 작품을 만드는 가족 전통을 이어받았다. 옥수수는 식량일 뿐만 아니라 호피족에게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옥수수를 열지어 심을 때처럼 끈게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위: 구원의 계획, 1994년, 설리 벤의 내화 점토 작품. 벤 자매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후 물 문경을 읽고서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이 도기는 주님의 행복의 계획을 나타낸다. □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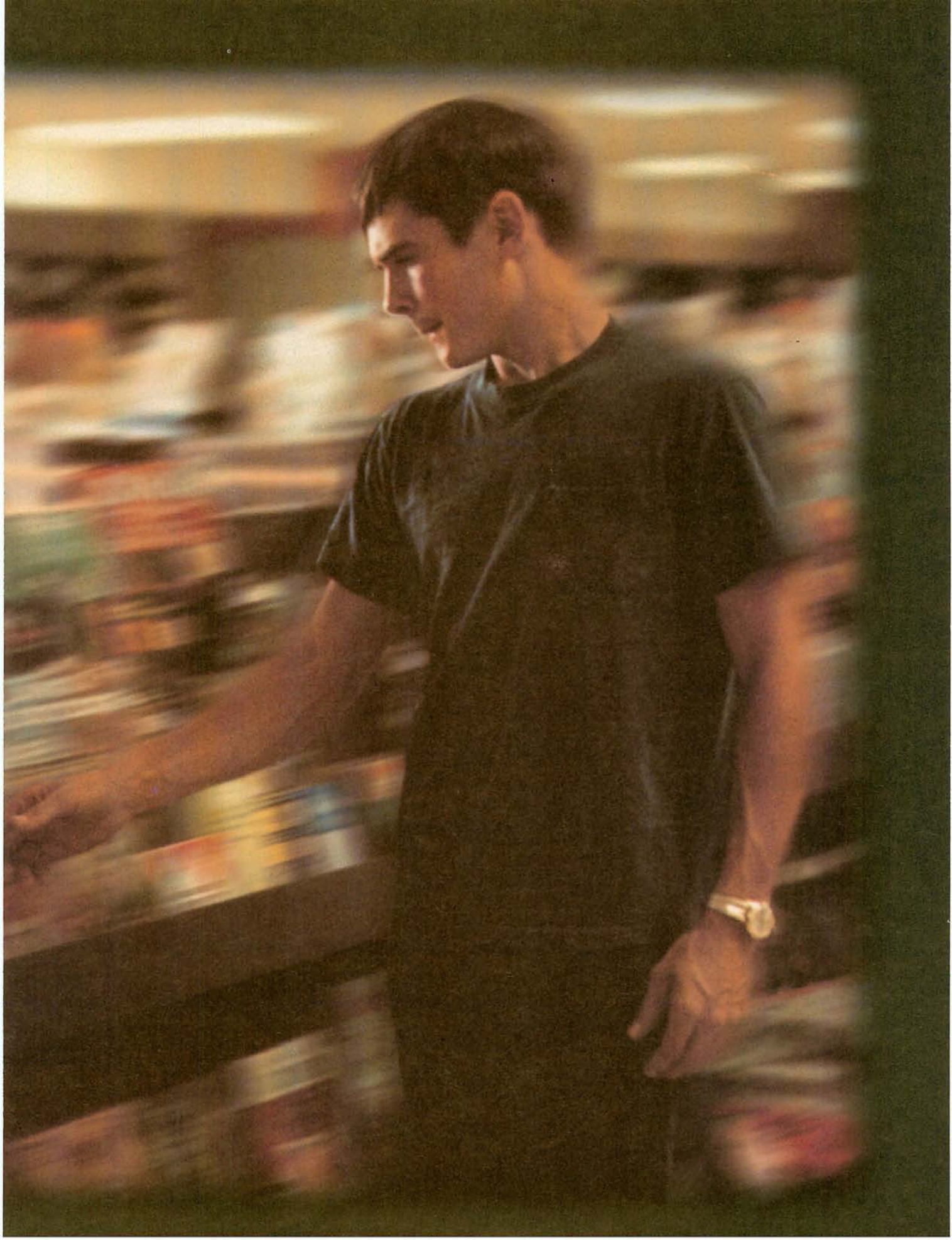
잡 지나 책, 콤팩트 디스크와 테이프 또는 텔레비전과 영화 화면 등에는, 소름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도를 지나친 방종에 비견되는 형태가 더욱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면과 음악과 인쇄물에는 성과 나체와 속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로나에서 10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 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너무 많은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형태의 이른바 연예물을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그런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며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는 화려한 많은 모조의 상 중 하나를 걸친 외설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우두머리 위조자가 만들어 내는 가장 훌륭한 제품인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그리고 서서히 사회의 도덕 표준을 비극적이고도 파괴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극 중의 일부는 자신이 덮에 걸려 있거나 또는 곧 그렇게 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상 생활의 고단함을 풀어 주는 휴식처 역할을 하는 오락의 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필요한 때에 하늘의 권세를 이끌어 낼 능력과 영성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락물에 탐닉하는데 따르는 결과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향은 영원한 형벌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처럼 분명히 속된 것을 아주 미약한 형태라도 눈으로 보거나 읽고, 귀로 들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지 않고 또한 스스로의 영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거실이나 그와 같은 것이 노출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정확한 묘사물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보상은 이 현세에서는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모두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은 기나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멀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외설적인 행위와 표현이 나오는 영화나 비디오, 출판물 또는 음악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에서 그것을 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한 테이프와 출판물은 쓰레기 통에 버리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 통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

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67)

오늘날 이 경전 말씀을 적용하여 보면, 우리가 가장 미약한 형태일지라도 그러한 류의 자료를 보거나 들을 때, 우리 내부의 빛은 내부의 어두움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희미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건 교회나 학교나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일이건, 인생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갖가지 불결한 영상으로 모든 빛의 원천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 버리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게 되며 그 결과 더 많이 실수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이로운 기구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은 우리가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은 무엇이든지, 쓰레기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기록하고 저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료가 무엇이든 더럽거나 속된 것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을 기록하게 되면, 아름다움과 깨끗한 생각은 뒤편으로 밀려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신앙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혼란과 불만족이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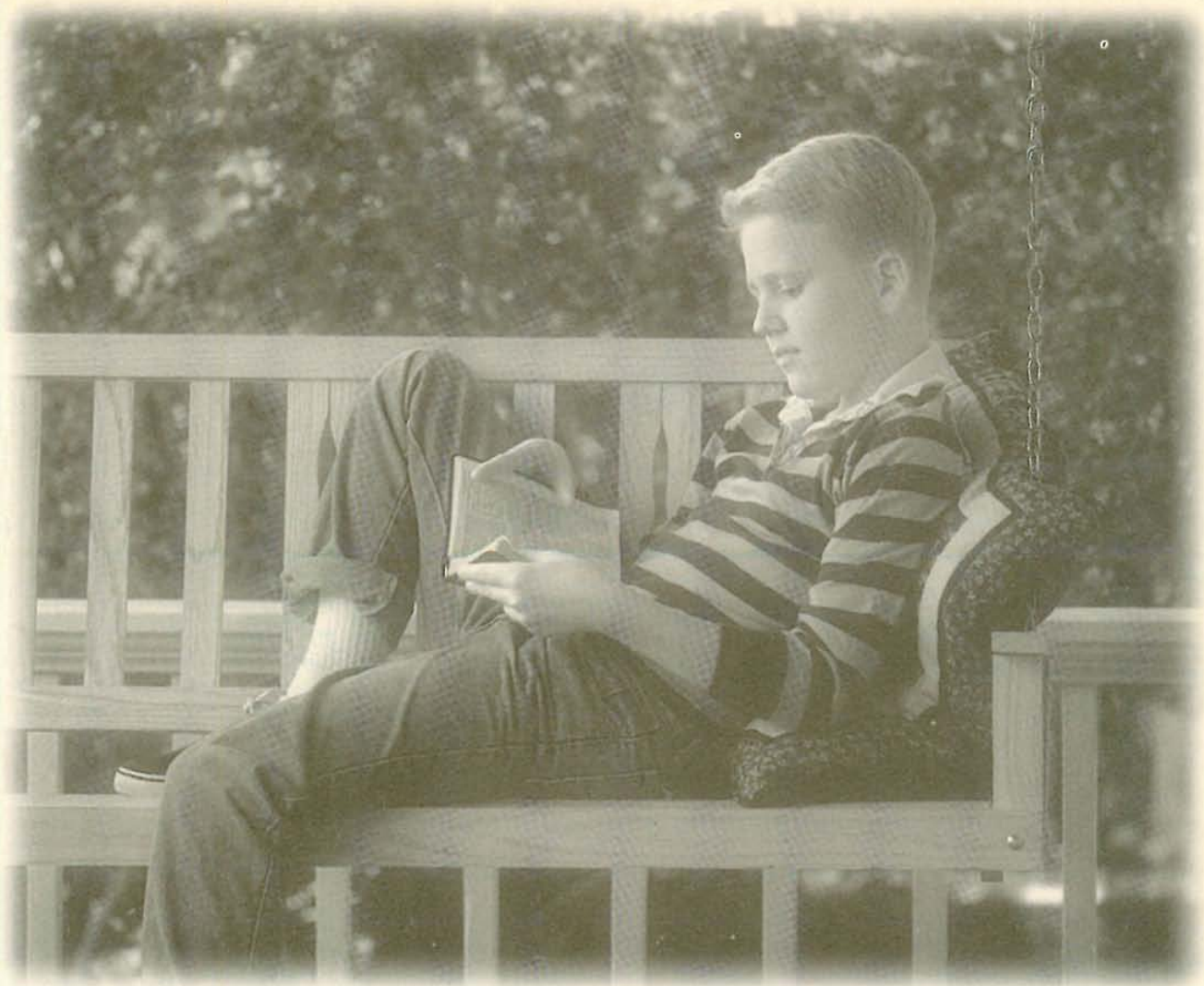
우리의 형제, 자매와 부모님도 더불어 전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나 가정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그 악한 머리를 높이 들고 분쟁이 존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을 꺼 버리고, 거기서 걸어 나와, 그것을 불태우며, 지워 버리고 파괴해 버리십시오. 저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연령을 제한시키는 영화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권고임을 알며,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 등급의 많은 영화도 사탄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표준은 영화 등급 제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영화, 음악, 테이프 및 기타 제품은 이들이 실제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해 모든 암흑을 주재하는 자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부적합한 자료를 읽거나 보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그 퇴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감독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 행위를 중지하고 이 불순물로부터 영을 깨끗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어느 불순물에서든지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매일 아침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진지한 기도로 시작되어 매일 밤 드리는 기도로 끝납니다. 그것은 영의 정화 과정에서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이거나 죄가 여러분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매일 경전 공부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더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매일 행해져야 합니다. 경전을 오늘 밤부터 읽기 시작하여 다만 몇 분간이라도 하루도 경전 읽는 일을 빠뜨리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경전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써 어두움을 제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루만에 또는 그 다음 날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도하다가 포기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또 다시 계속 되풀이하여 시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시도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을 헛되이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퇴치 계획에서 두번째 단계는 매일 경전 공부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매일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경전을 오늘 밤부터 읽고 다

만 몇 분간이라도 매일 읽어서 하루도 경전 읽는 일을 빠뜨리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써 어두움을 제압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권고드릴 수 있는 세번째 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백 과정을 통하여 오는 축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죄의식을 그대로 마음 속에 품고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 중 일부는 고백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내일 태양이 지기 전에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

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위대한 예언자인 모로나이가 모로나이서 10장 32절에 있는 작별 인사에서 하신 다음 말씀을 다시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참회로 그리스도께로 나아 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라.” □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재닛 토마스

그는 타히티에 사는 16세 소년이다. 그는 축구와 더불어 살며, 하루에 네 번이나 경기를 치를 때도 흔히 있다.

그는 타히티에서 상위권에 드는 축구 팀에서 활약한다. 그런데 타히티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바로 그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는 그를 아빠라고 부른다.

나에아 베넷에게, 그것은 매우 큰 축복이자 큰 문제이다. 타히티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아버지, 에럴 베넷의 이야기를 안다. 젊은 시절, 에럴은 타히티에서 가장 우수한 축구 선수였으며, 아마 남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였을 것이다. 그는 교회에 관해 배운 후 침례받기를 원했다. 선교사들은 에럴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나 에럴의 축구 경기는 모두 일요일에 열렸다. 그는 만일 자기와 아내가 침례받게 된다면, 그는 축구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 예비된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다.

에럴 베넷의 결정은 주위에 알려지게 되었다. 어쨌든, 축구는 타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으며 그는 최우수 팀의 스타 선수였다. 그는 자신의 대기족과 주위 동료와 스포츠 경기 운영자들에게서 많은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일단 에럴이 침례를 받고 나서 그의 팀에게 그가 더 이상 일요일

에 경기할 수 없다고 알리자, 스포츠 당국자들은 에럴이 계속 경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포츠 일정을 다시 조정하여 일요일 경기를 평일 저녁으로 옮겼다. 결국, 그의 동료들도 일요일에 쉬면서 그들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으며, 그 팀은 그들의 스타 선수와 함께 더욱 잘 경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타히티의 최우수 팀이 일요일에 경기하지 않기 때문에 타히티 컵 결승전은 토요일로 변경되었다. 태평양 지역 결승전도 변경되었다. 기존 방식에 저항한 한 사람이 한 국민의 스포츠 관행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현재 타히티 피라에 스테이크 부장인, 에럴 베넷이 바로 나에아의 아버지이다. 나에아는 그의 아버지 덕분에 일요일에 경기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내렸던 그 힘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나에아가 속한 팀의 열한 명의 말일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나에아의 누나들도 일요일에 농구 경기를 하지 않는다. 타히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일성도가 일요일에 경기할 것인지 물어 볼 필요가 없다. 나에아는

나에아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팀에서 경기하고 있다. 전에 축구 스타였던 에럴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위한 코치로서 더 많이 활동한다.



TAHITI

CENTRAL SPORTS
TAHITI

CAMP

그의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모든 폴리네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아버지를 두어서 얻게 되는 매우 좋은 점이다. 어려운 점은 모든 사람이 아들도 아버지만큼 훌륭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베넷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아들에게 향한 그러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제 아들을 저의 분신으로 여깁니다”라고 베넷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그 점에 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경기해야 하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그는 자신이 꿈꾸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베넷 스테이크 부장은 지금도 그의 아들이 속한 명예스런 최우수 팀과 함께 경기를 한다. 42세인 에렐은 이제 선수로서 은퇴할 시기에 와 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도록 돕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만은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아들에게 양보하려 하지는 않는다. 자부심을 그리 감추지 않는 장난기 어린 말투로 그는 아들의 경기 능력을 평가한다. “그는 잘 해낼 것입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보

다도 잘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는 결국 해낼 것입니다.”

나에아는 축구와 관련된 한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이다. 그러나 나에아는 아버지의 인생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는 중이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라고 나에아는 말한다. 에렐은 결혼한 이후 교회에 들어왔으므로 젊은 시절 선교 사업에 봉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에게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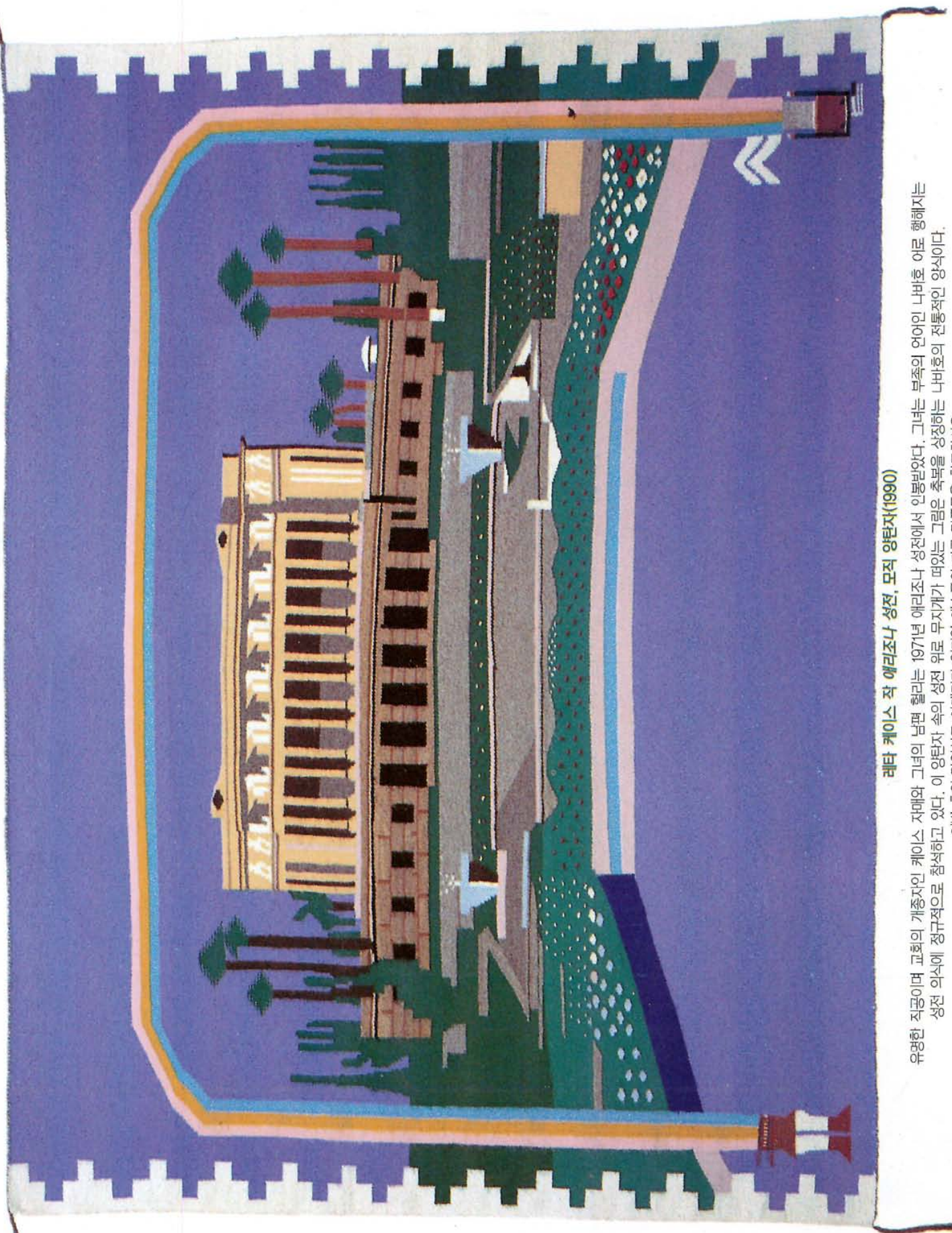
한가한 시간에, 아들과 집 안뜰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넷 스테이크 부장은 아들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인 엘마서 17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들려준다. 그 성구는 모사이야의 아들이 몇 년간 이별했다가 그들의 친구인 엘마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려준다. 그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해 왔으며 모두 여전히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됨을 매우 기뻐했다.

베넷 스테이크장이 그의 아들에게 소망하는 바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축구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이 나에아의 미래에 있든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가 계속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다. □



왼쪽 : 나에아가 스테이크 부장이신 아버지로부터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위 : 축구가 베넷 가족의 중요한 활동이지만, 나에아의 누이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레타 케이스 작 **에리조나 성전, 모직 양탄자(1990)**

유명한 작가이며 교회의 개종자인 케이스 자매와 그녀의 남편 হল리는 1971년 에리조나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녀는 부족의 언어인 나바호어로 행해지는 성전 의식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양탄자 속의 성전 위로 무지개가 떠있는 그림은 축복을 상징하는 나바호의 전통적인 양식이다. 이번 호의 밀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 예술품의 다른 작품들을 참조하십시오.



하 나님께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칠하며, 보석을 만들고 또한 자신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놀랄만한 재능을 축복해 오셨다.

—말일성도 나바호 인디언 예술가 레이 크레이시
(“남서부: 말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34쪽 참조)

왼쪽, 위: 영광의 세 등급, 1994년, 점토 작품, 레스 내밍하
오른쪽, 위: 호박꽃 목걸이, 1978년, 웨인 세카캉테와
오른쪽, 아래: 고대인들의 메아리, 1988년, 내화 점토 루시 루페 맥켈비
왼쪽, 아래: 노아와 방주, 1990년, 유진과 이사벨리 나란호 가족

